

# 다니엘서 - 번호 193

말세의 계시: 러시아의 운명에서 트럼프의 귀환과 짐승의 우상의 형성까지

Jeff Pippenger

2024-04-23

머지않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승리로 마무리할 것이며, 그 승리는 푸틴과 러시아에게 종말의 시작이 될 것임이 드러날 것이다. 고르바초프가 그의 제국을 재편(페레스트로이카)하고는 유엔으로 도피했듯이, 정치적 러시아는 유엔의 권위 아래에, 종교적 러시아는 교황권의 통제 아래에 놓이게 될 것이다. 트럼프는 2024년에 당선되어 세계화주의 민주당 세력과 공화당원임을 자처하는 세계화주의자들을 누르고, 푸틴과 러시아의 몰락에서 비롯된 여파를 수습하기 위해 유엔의 세계화주의자들과 동맹을 맺을 것이다. 그때 두로의 음녀가 러시아를 위해 중재에 나설 것이다.

파니움 전투에서는 40절의 세 차례 전투 중 첫 번째의 역사가 반복된다. 그 첫 번째 전투, 곧 1989년 소련 붕괴로 대표되는 사건에서, 마지막 여덟 명의 대통령 중 첫째가 교황권의 대리 세력 역할을 했다. 그 첫 대통령은 공화당원이었고, 이는 마지막 또한 공화당 대통령이 될 것임을 알리는 신호였다. 그 첫 대통령은 '철의 장막'이라는 벽에 관한 수사로 알려졌으며, 예언적 이정표로서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 그 '벽'도 무너졌다. 마지막 공화당 대통령은 미국 남부 국경의 장벽에 관한 수사로 알려지게 될 것이며, 장벽 건설에 대한 트럼프의 증언을 표시할 이정표는 일요일 법이 될 것이고, 그곳에서는 상징적인 '정교 분리의 벽'이 제거된다.

그 첫 번째 대통령은 미디어 스타 출신으로, 날카로운 언변과 유머 감각으로 알려져 있었다. 마지막 대통령은 미디어 스타 출신으로, 날카로운 언변과 유머 감각으로 알려져 있다. 1989년은 소련으로 알려진 제국의 와해를 알렸고, 사십 번째 구절의 세 차례 전투 중 마지막은 러시아로 알려진 제국의 와해를 나타낸다.

파니움 전투는 40절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전투이며, 그것은 첫 번째 전투로 예표되었다. 첫 번째 전투가 끝났을 때 전 세계는 세계의 유일한 초강대국이 미국임을 인정했다. 그와 같은 세계 지배는 마지막 전투의 결말에서 다시 반복될 것인데, 거기에서 안티오코스 3세와 마케도니아의 필립(미국과 유엔) 사이에 맺어진 동맹에도 불구하고, 미국(거짓 선지자)이 열 왕(용—유엔)의 으뜸되는 왕으로 세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40절의 세 전투는 '진리'의 서명이 찍혀 있다. 첫째는 마지막을 나타내고, 가운데 전투는 반역을 나타낸다. 첫째와 마지막 전투에서는 대리군대인 미국이 승리하지만, 둘째 대리군대는 패배하며, 그 둘째 대리군대는 반역의 세계적 상징인 나치즘이다.

도널드 트럼프의 세 차례 정치 캠페인은 "진리"의 표징을 지닌다. 그는 첫 번째와 마지막 캠페인에서는 승리하지만, 가운데 캠페인에서는 무신론의 짐승, 즉 용의 권세에 의해 패배한다. 이는 다시금 히브리어 알파벳의 열세 번째 글자로 표상되는 반역의 상징으로, 그 글자를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와 함께 놓으면 히브리어 단어 "진리"가 된다.

다니엘 11장 10절은 1989년에 끝의 때를 지목하고, 16절은 가까운 장래의 일요일 법령을 지목한다. 10절부터 15절은 40절의 감춰진 역사를 나타내며, 그것은 말세까지 포함되었던 다니엘서의 부분이다. 10절부터 15절을 40절의 감춰진 역사 속에 (줄에 줄을 더하는 방식으로) 대입하면, 말세와 관련된 다니엘서의 부분이 봉인이 풀린다. 그 부분은 가까운 장래에 있을 일요일 법령 때 안식일 준수자들의 은혜의 시기가 마감되기 직전에 봉인이 풀린다. 그러므로 그것은 마지막, 곧 일곱째 인을 대표한다.

그가 일곱째 인을 여섯을 때 하늘에는 약 반 시간 동안 침묵이 있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일곱 천사를 보았고, 그들에게 일곱 나팔이 주어졌다. 또 다른 천사가 금 향로를 가지고 와 제단에 썼고, 그에게 많은 향이 주어져 그것을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보좌 앞에 있는 금 제단 위에 드리게 하였다.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올라간 향의 연기가 천사의 손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 천사가 향로를 가져 제단의 불을 가득 담아 땅에 던지니, 소리와 우레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들은 나팔을 불기 위해 준비하였다. 요한계시록 8:1-6.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는 미국의 일요일 법령으로 시작되는 집행심판을 나타내며, 또한 미가엘이 일어서고 인류를 위한 은혜의 시기가 끝날 때 시작되는 집행심판을 나타낸다. 첫 번째 시기, 즉 일요일 법령부터 미가엘이 일어설 때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자비와 섞여 있으나, 그다음의 일곱 마지막 재앙은 자비가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일곱째 인의 개봉은, 일곱 천사로 상징된 바와 같이, 집행심판이 준비되는 때이다.

다니엘서 2장과 9장은 '성도들의 기도'를 느부갓네살의 짐승들의 형상에 관한 숨겨진 꿈과 관련된 사건들을 이해하기 위한 기도이자, 레위기 26장의 '일곱 때'와 관련된 회개와 자백이라고 밝힌다. 하나님 앞에 올라간 '금향로'의 향과 함께 섞인 그 기도들은, 십사만 사천에 속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드리는 것으로서, 제단에서 나온 불이 땅에 던져질 때 그들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

에스겔 9장에서 바로 그 성도들은 땅과 교회에서 행해지는 가증한 일들 때문에 탄식하며 울부짖고, 그들이 죄에 대한 깊은 통회를 나타낼 때 인치는 천사가 그들의 이마에 표를 한다. 요한계시록 8장과 마찬가지로, 멸하는 천사들이 상징하는 심판은 인침이 끝났다는 명령을 기다리며 배경에서 대기하고 있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무한하신 분께서는 여전히 모든 민족에 대한 장부를 기록하고 계신다. 그분의 자비가 회개하라는 호소와 함께 베풀어지는 동안 이 장부는 열려 있겠지만, 수치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정한 한계에 이르면 그분의 진노의 사역이 시작된다. 장부는 닫힌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그친다. 그들을 위한 자비의 간구는 더 이상 없다.

예언자는 세월을 굽어보며, 바로 이 때가 그의 환상 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았다. 이 시대의 나라들은 전례 없는 자비를 받아 왔다. 하늘의 가장 귀한 복이 그들에게 주어졌으나, 더욱 커진 교만과 탐욕, 우상숭배, 하나님에 대한 멸시, 그리고 지독한 배은망덕이 그들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결산을 속히 마쳐 가고 있다.

그러나 나를 떨게 하는 것은, 가장 큰 빛과 특권을 누렸던 이들마저 만연한 죄악에 오염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들 주위의 불의한 자들의 영향으로, 진리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이들 가운데서도 많은 이들이 식어 버리고 악의 거센 물살에 휩쓸려 내려가고 있다. 참된 경건과 거룩함에 피부어지는 만연한 조롱과 멸시는 하나님과 긴밀히 연합하지 않은 자들로 하여금 그의 율법에 대한 경외심을 잃게 한다. 그들이 빛을 따르고 마음에서 우러나 진리를 순종한다면, 이처럼 멸시되고 제쳐질수록 이 거룩한 율법은 그들에게 더욱 귀하게 여겨질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경시하는 태도가 더욱 드러날수록, 그 율법을 지키는 자들과 세상 사이의 경계선은 한층 더 뚜렷해진다. 다른 한 부류에서 그것들에 대한 경멸이 커질수록, 한 부류에서는 그 신성한 법도에 대한 사랑이 더욱 커진다.

위기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급속히 불어나고 있는 수치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거의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하나님은 징벌하기를 꺼리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징벌하실 것이며, 그것도 속히 하실 것이다.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은 다가오는 위험의 징조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에 자기 백성을 보호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스스로를 위로하며, 조용히 앉아 무관심하게 파멸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 결코 그렇지 않다. 그들은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다른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부지런히 수고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임을 깨달아야 한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경건의 누룩은 아직 그 능력을 완전히 잃지 않았다. 교회의 위험과 낙심이 가장 클 때, 빛 가운데 서 있는 작은 무리는 이 땅에서 행해지는 가증한 것들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교인들이 세상의 방식대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위한 그들의 기도는 더욱 간절히 드러질 것이다.

이 신실한 소수의 간절한 기도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주께서 원수 갚는 분으로 나타나실 때, 그분은 또한 믿음을 순전하게 지키며 세상에 물들지 않게 자신을 지켜 온 모든 이들의 보호자로 오실 것이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들에게 오래 참아 오셨을지라도, 밤낮으로 그분께 부르짖는 자기의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명령은 다음과 같다: '도성의 한가운데, 예루살렘의 한가운데를 지나가며, 그 가운데서 행해지는 모든 가증한 일들 때문에 탄식하며 울부짖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식을 하라.' 이렇게 탄식하며 울부짖는 이들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 왔다. 그들은 책망하고, 권면하고, 간청해 왔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던 사람들 중 일부는 회개하여 그분 앞에서 마음을 낮추었다. 그러나 주님의 영광은 이스라엘을 떠나 있었다. 많은 이들이 여전히 종교의 형식을 계속했지만, 그분의 능력과 임재는 없었다. 증언, 5권, 208-210.

10절부터 15절은 40절의 숨겨진 역사의 봉인을 떼어 드러내며,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다니엘 2장에서 다니엘과 세 명의 의인이, 그리고 다니엘 9장에서 다니엘이 대표한 기도들이 요구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들 위에 십사만 사천의 인침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동시에 밝혀 준다. 두 기도의 구분은 하나는 예언의 외적 사건들을 이해하기 위한 기도(다니엘 2장)이고, 다른 하나는 예언의 내적 체험을 이루기 위한 기도(다니엘 9장)라는 점에서 드러난다. 또 다른 구분은 성도들이 공동체적으로는 짐승의 형상의 시험의 메시지를 이해하려고 추구하지만(다니엘 2장), 개인적으로는 철저한 회개의 일을 성취해야 한다는 것이다(다니엘 9장). 그들의 기도는 에스겔 9장의 맥락 안에 있어야

하는데, 이는 그들이 그 땅과 교회 안의 죄악들로 인해 슬퍼하며 탄식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분의 진노가 심판 가운데 드러날 때,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겸손하고 헌신적인 이들은 탄식과 통곡, 책망과 경고로 드러나는 영혼의 고뇌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것이다. 다른 이들이 현존하는 악을 덮어 감추고 도처에 만연한 큰 사악함을 변명하려 할 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심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이들은 누구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도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의로운 영혼은 불의한 자들의 거룩하지 않은 행실과 말로 인해 날마다 괴로움을 당한다. 그들은 죄악의 거세게 밀려오는 급류를 막을 힘이 없으므로 슬픔과 두려움으로 가득하다. 큰 빛을 받은 자들의 바로 그 가정들에서 신앙이 멸시받는 것을 보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한다. 교회 안에 교만과 탐욕과 이기심과 거의 모든 형태의 속임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통곡하며 그들의 영혼을 괴롭게 한다. 책망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영은 발아래 짓밟히는 동안, 사탄의 증들은 승리한다. 하나님은 모욕을 당하시고, 진리는 무력화된다.

자신들의 영적 타락을 슬퍼하지도, 다른 이들의 죄를 애통해하지도 않는 부류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채 남게 될 것이다. 주께서는 손에 살육의 무기를 든 자신의 사자들에게 명하신다: '그의 뒤를 따라 성읍을 두루 다니며 치라. 너희 눈이 아끼지 말며, 불쌍히 여기지 말라. 노인과 청년,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다 진멸하라. 그러나 표가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가까이하지 말라. 그리고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하라. 그러자 그들은 그 집 앞에 있던 늙은 자들에게서부터 시작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 곧 주의 성소가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을 가장 먼저 맞았음을 본다. 하나님께서 큰 빛을 주시고 백성의 영적 관심사의 수호자로 세우신 그 장로들이 맡겨진 신임을 저버렸다. 그들은 이제 옛날처럼 이적과 하나님의 능력의 뚜렷한 나타남을 기대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시대가 변했다. 이러한 말들이 그들의 불신을 강화하여, 그들은 말한다. 주께서는 선도 행하지 않으시고 악도 행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너무 자비로우셔서 심판으로 자기 백성을 찾아오지 않으실 것이다. 이와 같이 다시는 나팔처럼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보여 주지 않을 자들의 입에서 '평안과 안전'이라는 외침이 나온다. 짓지 아니하는 이 병어리 개들이 모욕당하신 하나님의 의로운 보응을 느끼는 자들이다. 남자와 처녀와 어린아이들이 모두 함께 죽임을 당한다. 증언 5권, 210, 211.

다니엘서 11장 1절과 2절은 1989년의 끝의 때에서 시작하며, 10절도 마찬가지다. 2절은 역사를 도널드 트럼프의 첫 임기까지 이끌고, 그 여섯 번째로 부유한 대통령에서 알렉산더 대왕으로 표상되는 일곱째 왕국(유엔)에 이르기까지의 숨겨진 역사를 남겨 둔다. 2절의 부유한 왕 크세르크세스와 알렉산더 대왕 사이에는 페르시아 왕이 여덟 명 있었다. 2절에서 3절까지의 숨겨진 역사는 여덟 왕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트럼프의 첫 임기 종료부터 성경 예언의 일곱째 왕국에 이르기까지, 다니엘서 11장 2절에서 3절 사이의 숨겨진 역사에 걸친 왕들은 모두 열 명이다.

숫자 열은 시험의 상징이며, 바로 그 역사에서 일어나는 시험은 짐승의 형상이 형성되는 것이다. 여섯 번째로 부유한 대통령은 2015년 첫 대선 캠페인부터 글로벌리스트들을 자극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과 무신론의 용 짐승 사이의

투쟁의 시작을 알리며, 그 투쟁은 16절과 41절의 일요일 법령까지 멈추지 않는다. 그 전쟁 속에서 도널드 트럼프는 용을 자극한 첫 대통령이었고 또한 마지막이기도 하다. 트럼프는 땅의 짐승의 마지막 대통령이며, 트럼프는 일곱째 왕국의 첫 지도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트럼프는 열 왕의 처음과 마지막을 대표하며, 열은 시험을 상징한다.

1776, 1789 및 1798은 제8대 대통령이 일곱에 속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세 가지 역사를 나타낸다. 1776은 독립선언서의 공포와 제1차 및 제2차 대륙회의의 역사를 나타낸다. 1789는 연합규약이 작성되던 역사적 시기를 나타낸다. 이 시기는 1781년에 시작되어 1789년 헌법의 공포로 마무리되었다. 1798은 외국인 및 선동법의 공포와 성경 예언의 여섯째 왕국으로서 땅의 짐승의 시작을 나타낸다.

대륙회의는 첫 번째 의회와 마지막 의회의 두 예언적 기간으로 나뉜다. 제1차 대륙회의에는 두 명의 의장이 있었고, 페이턴 랜돌프가 첫 번째 의장이었다. 제2차 대륙회의에는 여섯 명의 의장이 있었다. 페이턴 랜돌프는 제1차와 제2차 대륙회의 모두에서 첫 번째 의장이었다. 제1차와 제2차 대륙회의의 역사 전체를 통틀어 의장은 모두 여덟 명이었다. 페이턴 랜돌프는 제1차와 제2차 대륙회의 모두에서 첫 번째 의장이었는데, 의장이 여덟 명이었던 이 예언적 기간에서 두 기간 각각의 첫 의장은 같은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의장직의 책임은 여덟 차례였지만, 실제 의장의 수는 일곱 명뿐이었다. 첫 번째 의장은 의장인 일곱 사람 가운데서 두 번이나 첫 번째 의장이었고, 그래서 랜돌프는 일곱에 속한 여덟째를 대표하며, 두 증인에 의거하여 그는 실제 첫 대통령, 즉 조지 워싱턴을 예표한다.

워싱턴은 랜돌프로 대표되며, 따라서 워싱턴의 상징인 랜돌프는 첫 번째 대통령인 랜돌프의 예언적 특성과, 랜돌프가 일곱에 속한 여덟째였다는 사실을 모두 전달한다. 그러므로 조지 워싱턴은 첫 번째 대통령이자 첫 번째 총사령관으로서 예언적으로도 여덟째였고 일곱에 속한 자였으며, 마지막 대통령인 트럼프 역시 일곱에 속한 여덟째가 될 것이다.

제2차 대륙회의의 두 번째 의장은 존 행콕이었다. 제2차 대륙회의는 1781년에 끝났다. 1781년부터 1789년까지는 연합 규약의 역사로 규정되는 시기다. 그 시기는 헌법이 공포된 1789년으로 상징된다. 그 시기에는 또한 여덟 명의 의장이 있었다. 연합 규약은 최초의 헌법이었지만, 그 약점 때문에 대체되었고, 1789년에 열세 식민지가 헌법을 비준했다.

그 시기에는 여덟 명의 대통령이 있었는데, 그 구성은 앞선 두 차례 대륙회의가 대표하는 시기의 역사에서 대통령이 아니었던 일곱 명과, 그 첫 번째 예언적 시기에 대통령이었던 한 명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존 행콕은 제2차 대륙회의에서도, 그리고 연합규약이 대표하는 시기에도 재임했다. 예언적 차원에서 두 차례의 대륙회의 동안 대통령이었던 사람은 단지 일곱 명뿐이었으므로, 예언적으로 볼 때 존 행콕은 연합규약 시기의 여덟 명 가운데 한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이전 시기의 일곱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기도 했다. 그러므로 그는 일곱에 속한 여덟째였다.

1781년부터 1789년으로 대표되는 두 번째 예언적 기간은 첫 번째 기간과 마찬가지로 여덟째이면서 일곱에 속한 대통령(행콕)이 있었으며, 1776년으로 대표되는 첫 번째 예언적 기간의 랜돌프도 그러했다.

여덟 명의 대통령이 이어진 두 시기 모두에서, 일곱에 속한 여덟째라는 수수께끼가 드러나 있다. 그 두 시기는 최초의 진정한 대통령(워싱턴)이, 랜돌프가 대표한 그의 전형을 통해, 그의 상징성에 예언적 수수께끼가 결부되어 있었음을 증언한다. 이 세 증인은 트럼프를 지목한다. 11장 1절과 2절에 나타난 트럼프는 오직 그의 첫 임기를 통해서만 묘사되며, 그 첫 임기는 밀이 없는 구렁텅이에서 온 짐승이 두 번째 선거를 훔쳤을 때 끝났다.

그 구절들을 성취한 역사에는, 가장 부유한 왕(Xerxes)의 시점과 일요일법을 상징하는 알렉산더 대왕의 등장(그때 열 왕이 잠시 일곱째 왕국이 된다) 사이에 존재하는 숨겨진 역사가 포함되어 있다. 부유한 왕과 자기들의 일곱째 왕국을 교황권에 넘기기로 동의하는 열 왕 사이에는 여덟 명의 왕이 있었다. 2절에서 3절까지의 숨겨진 역사를 구성하는 그 여덟 왕들은 1776년, 1789년, 1798년의 역사 속에서 여덟 명의 대통령의 두 증인을 발견한다.

그 역사는 22년의 상징성을 지니고 있으며, 신성과 인성이 결합될 때 144,000명이 봉인되는 역사임을 드러낸다. 또한 시작은 독립을 표시하고 끝은 독립의 박탈을 표시하며, 1776년으로부터 13년 뒤에 13개 식민지가 헌법을 비준했으므로, 그것은 "진리"의 증거도 지닌다. 또한 여덟 명의 왕(대통령)으로 이루어진 두 기간을 지목하는데, 두 기간 모두 여덟째가 일곱에 속한다는 수수께끼를 포함하고 있다.

2016년에 여섯째 대통령으로 등장한 트럼프는, 여섯째 왕국의 마지막 지도자로서도 연속된 열 왕 가운데 첫째와 마지막을 대표한다. 숫자 열은 그 역사의 시험 과정을 가리키며, 일요일 법령을 앞두고 그 법령에서 결론나는 시험은 짐승의 형상을 형성하는 일이다. 느부갓네살이 꾸민 짐승의 꿈에 나오는 형상은 여덟 왕국을 나타내며, 그렇게 함으로써 짐승의 형상 시험이 숫자 '여덟'로 대표된다는 증거를 제공한다.

마카베오 계열의 시험의 역사에서, 그 계열은 배도한 개신교의 빨의 계열과 안티오쿠스 3세로 대표되는 배도한 공화주의의 빨의 계열을 대표하며, 그 계열들과 빨들은 하나의 빨로 모여 교황권의 형상을 이룬다. 같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십사만 사천으로 대표되는 자들 안에서 완전하고 영구적으로 재현된다.

40절의 숨겨진 역사는 2절부터 3절까지의 숨겨진 역사와 10절부터 15절까지의 역사 안에서 봉인이 풀린다. 트럼프가 2025년 1월 20일 취임식에서 일곱에 속한 여덟째 대통령이 될 때, 크세르크세스와 알렉산더 대왕 사이의 여덟 왕은 짐승의 형상이 형성되는 때가 이르렀음을 표징하며, 트럼프는 연속되는 열 왕의 처음과 마지막을 나타낸다.

우리는 다음 글에서 이 연구를 계속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보니,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안팎으로 글이 쓰여 있고 일곱 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가 있었다. 또 내가 보니 힘센 한 천사가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누가 그 두루마리를 열고 그 인들을 풀기에 합당한가? 하니, 하늘에도 땅에도 땅 아래에도 아무도 그 두루마리를 열거나 그것을 볼 수 있는 이가 없었다. 두루마리를 열어 읽거나 그것을 볼 만한 자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내가 많이 울었다. 그때 장로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내게 말하였다. 울지 말라.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셔서 그 두루마리를 열고 그 일곱 인을 푸실 수 있게 되었다. 내가 보니, 보좌와 네 생물들 가운데와 장로들 가운데에 마치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서 있었는데, 그에게는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었으니, 그것들은 온 땅으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었다. 그가 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받으셨다. 그가 두루마리를 받으시자 네 생물과 이십사 장로가 어린 양 앞에 엎드렸는데, 그들 각자는 거문고를 가지고 있었고, 향이 가득한 금대접들을 가지고 있었으니,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는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그 인들을 여실 합당하시니이다. 이는 주께서 죽임을 당하셨고,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주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께 속량하셨기 때문이니이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다스리리이다. 요한계시록 5:1-10.